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Reaction of Forest Ecotourists

환경의식에 따른 산림생태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에 관한 연구

Guang-Hao Yan(연광호)*, Seung-Hwa Na(나승화)**

Abstract

With the slowdown i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hang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cotourism is being discussed in various social fields. Ecotourism is being populariz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ow it is becoming a mainstream product from one of mass tourism. Ecotourism's emphasi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tourism destination'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through ecotourism study and education, enable people to understand the core valu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2011 was nominated as "the Year of World Forest" by the UN. In the recent years, fores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 their own values and functions in environment,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particular, th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becoming an international agenda. Forests are the only effective solution for the carbon dioxide that causes global warming. Moreover, forests constitute a major part of ecotourism, and are now most used by ecotourists. For example, Korea, wherein 60% of the land is forest, attracts ecotourists. With the increasing interests in environment,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 ecosystem forest, which is highly valued for its conservation, is increasing significantly every year and is receiving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However, poor facilities in the forest ecotourism sites and improper market strategies are the reasons for the poor running of these sites. Furthermore, tourists' environmental awareness affects ecology environmental pollution or the optimization of forest ecotourism.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mong tourist attractivenes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charm degrees of the attractions, and attitudes after tours, we established some scales based on existing research achievement. Then, using these scales, the researcher completed the questionnaire survey. From December 20, 2010 to February 20, 2011, after conducting surveys for 12 weeks, we finally obtained 582 valid questionnaires, from a total of 700 questionnaires, that could b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First, for the method of research and analysis, the researcher initially applied the Cronbach's (Alpha) for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subsequently applie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verifying the validity. Second, in order to analyze the

demographics, the researcher makes use of the Frequency analysis for the AMOS, measurement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 computing, and also utilizes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nomological validity. Third, for the analysis of the ecotouris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mpacts on tourist attractiveness, charm degrees of the attractions, and attitudes after the tour, the researcher uses AMOS 19, with the path analysis and equation of structure.

After the research, researchers found that high awareness of natural protection lead to high tourist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d more positive attitude after the tour. Moreover, this research shows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reactions of the ecotourists to the ecotourist development. Accordingly, environmental consciousness does not affect the tourist attractiveness that has been interpreted as significant. Furthermore, people should focus on the change of natural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psychological reaction of ecotourists while ensu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tourists and developing some ecotourist programs.

Keyword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Destination Attractiveness, Satisfaction, Attitudes after Tour

국문초록

2011년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다. 최근 들어 산림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제 분야에서 그 가치와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유일한 흡수 원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생태관광자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현재 생태관광객이 널리 이용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생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태관광지에 대한 환경보전의식도 제고를 가져왔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생태환경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부적절한 개발로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생태관광객의 높은 환경의식과 엇갈려 실패를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객의 환경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 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서 생태관광지와 관광객사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Honam University, Korea.
E-mail: yangh@honam.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Air Travel Hotel and Tourism, Koguryeo College, Korea. TEL: 061-330-7479, E-mail: shna@kgrc.ac.kr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객과 그들의 환경의식을 정의하여 관광지에 대한 매력성, 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태관광지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산림생태관광객의 높은 자연보호의식은 관광지 매력성, 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환경오염의식은 관광지 매력성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인 생태관광지 개발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 전환 및 생태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환경의식,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관광 후 태도

I. 서론

인류가 생존하는 지구환경이 위기에 처해있고 환경 문제가 둔화되고 있을 때 생태관광의 제시는 이미 시작되었다.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단어가 이용되어 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근 반세기라는 시간을 들여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생태관광은 여행부문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고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면 생태관광은 매년 20-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측정된 세계 관광시장의 7%를 차지하는 생태관광은 2012년에는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관광은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환경적인 비용이 부가되고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West & Carrier, 2004) 비해서 생태관광은 지역 커뮤니티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안겨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tronza & Gordillo, 2008). 그리고 생태관광 관련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Font, 2002; Font & Harris, 2004; Huppel & Ishikawa, 2009), 바람직한 생태관광의 실천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환경의식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객의 심리적·행동적 반응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논의를 통하여 마케팅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루어져야 됨을 제시해야 한다.

2011년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다. 최근 들어 산림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제 분야에서 그 가치와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agenda)로 부각되면서, 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유일한 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생태관광자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현재 생태관광객이 널리 이용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2010년 4월 8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산림 총면적은 이미 4,033,060,000ha로 육지총면적의 31%, 일인당 산림면적은 0.6ha이고 대한민국의 산림총면적은 6,222,000ha로 국토총면적의 63%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한국 자연공원은 총 78개소(총면적 7,869km²)로 전 국토의 4.9%(육지면적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산악형 국립공원이 15개소, 도립공원 24개소, 군립공원 27개소가 있다. 국가가 지정한 생태보전지역은 낙동강하구 등 15개 지역(313.326km²)이며,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은 한강 범섬 등 22개 지역(50.539km²) 등 총 37개 지역

363.865km²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지하고, 걷기여행 등 미디어를 통한 많은 노출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산림생태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시설이나 생태관광지를 이용하는 생태관광객들이 이제는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생태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최대화 하는 기점에 염두를 두고 있다.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생태관광에 관련된 논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생태관광 개발에 관련논문(김도희, 1997; 강인원, 2001; 노정철, 김진훈, 2005; 윤화영, 2008), 생태관광객에 대한 논문(박혜윤, 양현주, 2006; 강미희, 2006; 조진희, 김수봉, 2007),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관한 논문(노용호, 임채관, 2006; 오민재, 이소연, 2008; 이재만과 지진호, 2008; 문창현, 2009)들이 있다. 여기에서 많은 논문들은 외국의 사례나 연구를 많이 도입하고 모방하는데서 한국 실지에 불합리한 연구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 및 관리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소중한 생태관광자원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많은 생태자원은 여전히 동결 보존의 논리 때문에 오히려 보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이다(김성진, 2002).

한편, 연구방법론을 통한 생태관광객의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설명하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러한 생태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에 따라 정확한 마케팅전략을 펼쳐 지역의 생태관광 개발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올바른 정책과 생태관광 정책 수립, 관광기업자의 생태관광지 개발, 운영, 관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생태관광객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조진희, 2006). 또한 산림생태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높은 환경의식과 관광동기, 관광지 매력, 관광만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이 개발된 생태관광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태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 반복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산림생태관광객의 관광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만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의 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기법을 통한 구체적인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현황 및 생태관광객의 관광특성과 심리적 반응, 환경에 대한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산림생태관광객의 관광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의 정확한 진행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의 효과적인 개발 및 마케팅전략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 하면 첫째, 이론적 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산림생태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전략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탐

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한 척도와 설문지를 최대한 종합하여 응용하려 한다. 셋째, 산림생태관광객의 환경의식이 생태관광지 매력성, 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생태관광지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마케팅적 세부 요소를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및 가설설정

1. 생태관광 및 산림생태관광객

1) 생태관광의 개념 및 특징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65년 Hetzer가 'Links'라는 잡지에 문화, 교육, 관광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에서 대안으로 제안하는 과정에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시초이며, 1981년에 Ceballos-Lascurain은 생태관광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turismo ecologico'라는 스페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3년 'ecoturismo'로 축약된 이 용어는 PRONATURA라는 보존 비정부조직(NGO)의 회장이며 멕시코의 도시개발생태부 총재로 Ceballos-Lascurain이 재직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생태관광이 보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생태관광을 여행의 한 유형으로 정의 했는데, 그 여행에서는 자연환경이 주요한 초점이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생태관광 현상을 이해할 때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또한 자연환경이 생태관광의 중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의 여행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이라는 것이다(이후석, 2001).

국제관광기구인 ASTA는 199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관광환경 회의에서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환경과 조화하는 관광' 즉,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생태관광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98년 7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이 생태관광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IYE)'로 지정한 이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국제기구, 정부, 민간단체가 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생태관광의 해' 동안 국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을 준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조진희, 2006).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생태관광을 "자연(과거와 현재의 관련 문화자원 포함)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여행이나 방문으로서, 보존을 증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지역주민에게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Stephen Wearing and John Neil(2001)는 생태관광 정의의 지향성에서 생태관광은 4개의 기본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첫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여행한다는 개념. 생태관광의 초점이 기본적으로 자연지역을 경험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은 비교적 침해받지 않거나 보호된 자연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생태관광이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개념. 생태관광은 개

발도상국으로 여행하는 것, 즉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한 것, 그들의 문화, 그 지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식물군, 동물군, 지질학 그리고 생태계에 관여하는 연구와 즐거움을 위하여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셋째, 생태관광은 보존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는 개념. 생태관광은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을 자연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데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생태관광이 교육적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 일반적으로 생태관광객은 그들의 여행에서 자연에 관하여 배우려는 강한 욕망을 나타내는데 자연의 평가, 교육에 관한 설명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생태관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경의 보존·보호와 최소의 개발로 최대의 만족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이익에 있는 것이다(최혜경, 1998). Stephen(1999)은 생태관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① 생태관광은 자연적, 문화적 그리고 인간의 환경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② 생태관광은 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 ③ 생태관광은 관광분야와 여러 가지 후원과 자원관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한다.
- ④ 생태관광은 수지가 맞는 국내 산업을 활발하게 한다. 호텔을 위시한 숙박시설, 식당 등을 비롯한 음식 서비스 점, 수송체계, 수공예 그리고 안내 서비스 등 이다.
- ⑤ 생태관광은 농업 고용이 산발적이거나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지역경제를 다양화해준다.
- ⑥ 생태관광은 관광과 다른 자원 이용자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얻으려고 한다. 생태계의 수용능력에 적합한 관광개발을 보장해주는 계획안과 구획형성을 통합시킨다.
- ⑦ 생태관광은 지역의 교통, 통신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개선을 활발하게 해준다.
- ⑧ 생태관광은 국내와 국제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한다. 그것은 또한 고고학적인 장소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과 구역을 보존하는 것을 장려하고 투자한다.
- ⑨ 자연관광은 농업에 맞지 않는 토지를 생산성 있게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그 토지의 넓은 지면을 자연식물로 채울 수 있다.
- ⑩ 문화관광은 지역사회 평가를 높여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많은 이해와 왕래를 제공해준다.
- ⑪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사회의 경제복지와 사회 복지에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증해주며 그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도와준다.
- ⑫ 생태관광은 관광의 영향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환경의무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을 개발하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도 반대한다.

2) 산림생태관광객

국토의 녹화성공 이후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희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산림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증진이나 문화적 기능이용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야외휴양 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깝고 지

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가로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산림문화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체험형 산림휴양 수요, 생태관광 및 청소년의 자연학습·체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새로운 휴양수요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이 단순한 휴식의 장소에서 휴식과 산림어드벤처(Forest Adventure)가 공존하는 브랜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 등 개별사업에서 벗어나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다목적 개념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생태관광 개념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생태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역시 미흡한 편이다. 생태관광객은 환경과 조화로운 위락적 기회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인간보다는 자연이 지배력을 갖는 곳에서 지식과 경험을 찾아서 전통적인 관광의 틀 속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들은 호텔 풀장을 이용하는 것이나 눈코 뜰 새 없는 관광스케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열대림을 방문하고 조류, 포유동물, 나무, 그리고 야생화를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고 그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며, 그들의 여행경비가 환경보존과 지역경제에 이익을 주는 것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Wearing and Neil, 2001).

국내의 생태관광객 관련 정의를 살펴보면, 강미희(2006)는 20인 이하의 소규모로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관광으로, 전문 가이드나 강사와 함께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관광에 참여한 관광객을 생태관광객이라 하였으며, 이귀옥(2000)과 노용호(2004)는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관광지를 방문한 방문자를 생태관광객이라 하였고, 조진희(2006)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현대세대와 미래세대의 견지에서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계몽된 여행자로 환경보전 지향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 자원을 이용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객을 잘 보전되어진 산림지역에서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자연과 지역문화를 즐기고, 체험하고, 학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편익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 환경의식과 관광지 매력성 간의 관계

Dunlap and Jones(2002)는 환경의식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 혹은 그것의 해결에 대한 개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칭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양종희(1992)가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 인지, 태도, 가치, 행동의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한상진(2001)은 환경의식을 전반적인 환경관심도와 개별적(개인적) 환경태도, 집합적(집단적) 환경태도를 포괄하는 것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환경의식을 측정하는 척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국외의 경우, Tongnacci(1972) 등은 환경의식의 하부영역을 일반적 환경인식의 중요성과 특정한 환경태도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전자는 대기, 물, 야생동물 보호지역, 원시자연지역,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후자는 자연보호, 환경오염, 발전소 오염, 인구과잉, 개인 가족계획의 분야를 포함시켰고, Weigel-Vernon-Tognacci(1974)은 환경단체에 대한 태도, 자연보호, 환경오염, 청정 환경의 중요성을 환경의식의 하부영역으로 나누었으며, Weigle and Weigle(1978)은 환경의식을 자연보호와 환경오염으로 나누어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EC척도를 제시하였으며, Stemet(2003) 등은 환경의식을 환경오염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각각에 3개씩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AC(Awareness of Consequences)척도를 제시하였다(조운애, 2005, p42에서 재인용). Dunlap(1992)은 1965~1990년까지의 환경이슈에 관한 일반 대중의 여론조사 질문내용을 분류해 수질, 대기에 대한 오염정도, 오염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여부, 자연보호, 자연보호법규, 위험도 인식정도로 나누었다(우형택 등,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Weigle and Weigle(1978)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의식을 자연보호의식과 환경오염의식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석희(2000)는 매력성을 어떤 사물이나 경험에 대해 의식적 충동이나 선호를 가지고 즐거움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관광매력성을 관광현상 요소 중의 한가지로서 타 지역이나 타국의 경관이나 문물 등을 구경·견문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Yoon & Uysal(2005)은 관광객들이 'pushed' and 'pulled' 팩터로 인해서 여행하게 되는데, 'Pulled factor'(당기는 요소)는 바닷가, 레크리에이션 시설, 문화적인 매력물, 엔터테인먼트, 자연경관, 쇼핑, 공원 등이 있다. 이를 관광목적지 매력성의 외부 힘(external forces of the destination's attractiveness)이라고 하였으며, 윤철민(2007)은 관광지의 매력은 특정 관광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며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는 풀 팩터(pull factor)의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Blamey(1997)는 생태관광 매력에 대해 3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생태관광 매력물은 문화적인 매력이 결합된 자연적인 환경을 포함하여야 하며, 둘째, 생태관광객과 환경적인 매력사이에 교육이나 학습이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환경적·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박경호, 2009에서 재인용).

Gearingm, Swsr & Var(1974)이 관광지의 매력성에 관련된 국외의 초기 연구자이고, 관광지 측정요인을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레크리에이션과 쇼핑시설, 하부구조, 음식과 숙박시설의 5개의 중요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내의 주요 연구로서 김영국(1987)은 매력성 평가 모델에 기초하여 문화관광자원의 매력평가를 자원적 인자(역사성, 예술성, 전설, 보전성, 종교성, 자연경관, 사회성, 기후)와 인위적 인자(접근성, 편의성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정하윤(2002)은 관광매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물리적 측면으로서 자원이나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징적 특성으로서 이미지(image), 속성(attributes), 특징(features), 자력(magnetism), 서비스 속성(service attributes), 환대성(hospitalities)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비자 행동이론이나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매력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은 태도(attitude)라고 할 수 있다. 태도이론을 기초로 하면, 관광지 매력성은 잠재적 관광객에게 어떤 관광지들이 자신들의 휴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신념, 느낌, 행동성향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관광지가 잠재적 관광자로 하여금 그들의 여행 욕구를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부여하면 할수록 그 관광지는 매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김정준, 2009). 또한 환경의식은 자연과 사회·문화 환경을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환경의식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귀옥 2000).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과 환경오염의식이 관광지 매력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H1: 산림생태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이 관광지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산림생태관광객의 환경오염의식이 관광지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및 관광 후 태도 간의 관계

Becken(2005)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지속적인 관광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관광지의 매력을 바탕으로 재방문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이혁진·류재숙(2007)의 연구에서는 매력성 요인과 유사한 조형물의 심미성 요인이 이용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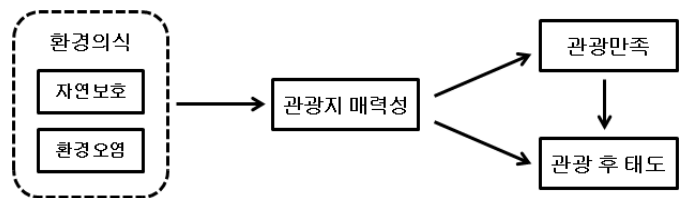
윤정현(2007)은 일본의 관광 매력성, 관광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매력성이 관광태도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구영덕(2005)은 대형할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각이 고객만족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하드웨어 매력성과 소프트웨어매력성이 관광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H3: 관광지 매력성이 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관광지 매력성이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관광만족이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설정된 가설에 근거하여 잠재요인들 간의 개념적인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표 1>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측정변수	비고
환경의식	자연보호	I-1. 자연보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 I-2. 본인은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한다. I-3.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I-4. 자연자원의 귀중함을 알리는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	우형택 등(1999), 조진희 등(2004), 조진희(2006).
	환경오염	I-5.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히 고려 및 개선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I-6.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 부담이 증가되더라도 청정연료를 사용하겠다. I-7. 환경오염은 나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I-8. 정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주민의 의견, 불편, 불만을 수렴하여 환경정책 및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I-9. 언론매체에서 정규적으로 환경보호프로그램을 방영하여야 한다.	
관광지 매력성		II-1. 관광지는 독특한 지방색이 있었다 II-2. 관광지의 지역주민 환대는 적절했다. II-3. 관광지의 종사원 서비스는 적절했다 II-4. 관광지의 안내 체계는 적절했다. II-5. 관광지의 제공 정보는 적절했다..	Ritchie & Zins(1978), 김계섭, 안윤지(2005), 유영심(2008), 김정준(2009).
관광만족		III-1. 관광지의 생태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III-2. 관광지 이미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III-3. 관광지 상인이나 주민의 환대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III-4. 관광지의 기초시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귀옥(2000), 홍수희(2003), 김정준(2009).
관광 후 태도		IV-1. 기회가 된다면 이 관광지를 다시 찾을 것이다. IV-2. 이와 유사한 관광지를 방문할 의사가 있다. IV-3. 이 관광지를 타인에게도 추천(권유)을 하겠다. IV-4.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관광지에 관한 홍보에도 적극 참여 하겠다.	Fisher & Price(1991), 김창수(2009), 정승훈(2010), 김재호, 박석희(2010).

III.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각 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과 응답자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경험이 있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사전조사로 창원시에서 진행 된 2010년 산림문화체험전에 참석했던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와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설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질문순서 적합성을 파악했다.

본 조사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12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700부를 전국에 배포하여 6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582부의 유효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볼 때,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70명(63.3%), 여성이 212명(36.4%); 연령은 20세미만 8명(1.4%), 20~30세가 262명(45.0%), 31~40세가 134명(23.0%), 그리고 41~50세가 101명(17.4%), 51~60세가 63명(10.8%), 60세 이상이 14명(2.4%); 학력은 고졸이하 116명(19.9%), 전문대 졸업이 75명(12.9%), 4년제 대학재학 혹은 졸업이 268명(46.0%), 대학원이상 123명(21.1%); 직업은 학생이 194명(33.3%), 전문직이 66명(11.3%), 직장인이 184명(31.6%), 자영업이 45명(7.7%), 그리고 공무원이 18명(3.1%), 주부가 48명(8.2%), 기타가 27명(4.6%); 연간소득은 2,000만원미만이 256명(44.0%), 2,000~3,000만원이 148(25.4%), 3,100~4,000만원이 79명(13.6%), 4,100~5,000만원이 41명(7.0%), 5,000만 원 이상이 58명(10.0%); 거주지는 서울 및 경기권이 133명(22.9%), 강원권이 78명(13.4%), 대전 및 충청권이 95명(16.3%), 광주 및 전라권이 88명

(15.1%), 부산, 울산 및 경상권이 116명(19.9%), 제주권이 61명(10.5%), 기타가 1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 가능하고 독자적인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항목이 타당성 검증을 통해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며 이 개념이 다시 측정되었을 때 시간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구동모,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SPSS 19를 이용하여 산림생태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과 환경오염의식,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신뢰성 측정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자연보호의식이 0.854, 환경오염의식이 0.811, 관광지 매력성이 0.913, 관광만족은 0.928, 관광 후 태도는 0.889로 측정 문항의 Cronbach's α (Alpha)값이 모두 0.70이상으로 모든 변수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혹은 속성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즉 측정개념이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해당 특성이나 속성을 어느 정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서 크게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구성 타당성으로 분류된다. 내용 타당성은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Construct의 전체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기준 타당성은 두 대상들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구성 타당성은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Construct의 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법적 타당성에 의해서 평가된다(이학식, 2008).

따라서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AMOS 19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전체모형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신뢰성 계수
자연보호의식	I-1	1.000	0.654	-	-	-	0.736
	I-2	1.031	0.695	0.094	10.953	0.000	
	I-4	0.960	0.616	0.092	10.428	0.000	
환경오염의식	I-5	1.000	0.717	-	-	-	0.851
	I-7	1.121	0.761	0.077	14.601	0.000	
	I-9	1.056	0.756	0.073	14.554	0.000	
관광지 매력성	II-1	1.000	0.633	—	—	—	0.861
	II-2	1.341	0.853	0.096	13.924	0.000	
	II-3	1.169	0.738	0.087	13.394	0.000	
관광만족	III-1	1.000	0.750	—	—	—	0.859
	III-2	1.048	0.830	0.082	12.855	0.000	
관광 후 태도	IV-1	1.000	0.773	—	—	—	0.890
	IV-2	1.035	0.806	0.060	17.349	0.000	
	IV-3	0.980	0.765	0.058	17.758	0.000	

$\chi^2=133.096$ (df=67 p=0.000), CFI=0.974, TLI=0.965, RMR=0.024, RMSEA=0.042

시한 결과는 $\chi^2(df)=133.096(67)$, CFI=0.974(0.9이상이면 우수), TLI=0.965 (0.9이상이면 우수), RMR=0.024 (0.05이하이면 우수), RMSEA=0.042(0.05 이하이면 우수)로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 <표 2>와 같이 측정변수의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개념들 간 상관관계수의 제곱값(θ^2)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즉, $AVE > \theta^2$ 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07). 분석결과 각각의 개념들 간의 AVE가 θ^2 보다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각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개념 간 상관관계

개념	AVE	개념 간 상관				
		자연보호의식	환경오염의식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관광 후 태도
자연보호의식	.430	1.000				
환경오염의식	.555	.631	1.000			
관광지 매력성	.571	.068	.503	1.000		
관광만족	.626	.068	.257	.332	1.000	
관광 후 태도	.612	.162	.279	.378	.582	1.000

2. 가설검증

1)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 및 적합도 검증

모델에 대한 추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한 추정 및 적합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그림 2>참조).

지수(NFI)는 0.617; 비교 적합지수(CFI)는 0.686;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은 0.068로 나타났다.

추정 후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χ^2) 값 94.930으로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38, p=0.000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은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규성을 전제로 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절대적인 지수라기보다는 표본의 크기가 200이상이고 검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방정식 모델이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 참고 지표로만 허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되지 못한다(이병원, 2002). 그러므로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인 GFI, 기본모델에 대하여 주어진 자료의 변량이나 공변량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GFI는 0.970; NFI는 0.939; CFI는 0.962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권고 지수인 0.9이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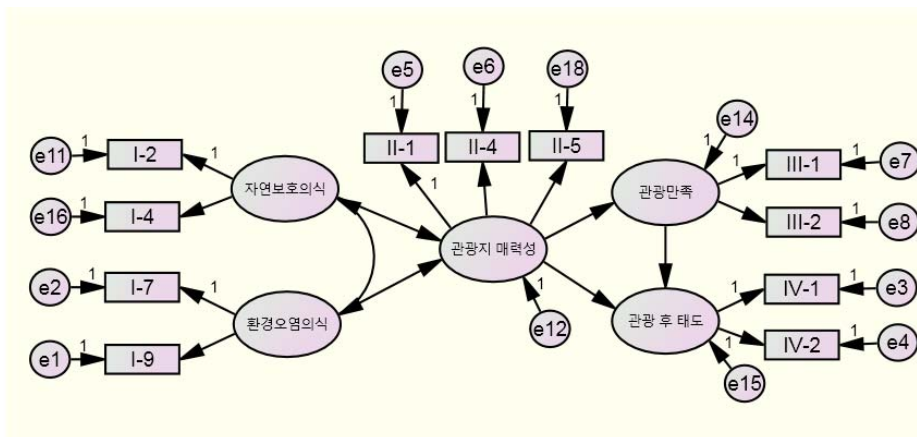
분석 자료의 매트릭스와 미지수들에 의해 재생산된 매트릭스 간에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가를 보여주는 RMR은 0.039로, RMSEA는 0.052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치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하여 수용할 수 있다(<표 4>참조).

본 연구는 샘플사이즈에 민감하며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다양한 지수로 평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이 전반적으로 분석에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검증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 환경오염의식,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관광 후 태도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으로 잠재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였다.

연구모델의 가설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그림 2> 추정 된 구조방정식 모델

추정 전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들을 보면 카이제곱(χ^2) 값 4501.789;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1214; p=0.000; 기초적합 지수(GFI)는 0.727;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은 0.061; 표준 적합

첫째, H1은 “산림생태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이 관광지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0.327, t=2.760 p<0.01).

<표 4>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 결과

구분	적합도 지수	추정 전	추정 후
절대 적합지수	카이제곱(χ^2) 자유도(df) p-value	4501.785	94.930
		1214	38
		.000	.000
	기초적합지수(GFI)	.727	.970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	.061	.039
증분 적합지수	표준 적합지수(NFI)	.617	.939
	비교 적합지수(CFI)	.686	.962
기타지수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068	.048

둘째, H2는 “산림생태관광객의 환경오염의식이 관광지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경로계수= -0.179, t= -2.299 p<0.05).

셋째, H3은 “관광지 매력성은 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0.697, t= 6.343 p<0.001).

넷째, H4는 “관광지 매력성은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0.327, t= 3.242 p<0.001).

다섯째, H5는 “관광만족이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0.546, t= 7.841 p<0.001).

흡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정부나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고 마케팅전략이 미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태환경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부적절한 개발로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생태관광객의 높은 환경의식과 엇갈려 실패를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객의 환경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 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서 생태관광지와 관광객사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객과 그들의 환경의식을 자연보호의식과 환경오염의식으로 분류하여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및 관광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S. E.	C. R.	P	지지 여부
H1	자연보호의식 → 관광지 매력성	0.327	0.118	2.760	**	지지
H2	환경오염의식 → 관광지 매력성	-0.179	0.078	-2.299	*	기각
H3	관광지 매력성 → 관광만족	0.697	0.110	6.343	***	지지
H4	관광지 매력성 → 관광 후 태도	0.327	0.101	3.242	***	지지
H5	관광만족 → 관광 후 태도	0.546	0.070	7.841	***	지지

*** p<0.001, ** p<0.01 * p<0.05

V.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011년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다. 최근 들어 산림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제 분야에서 그 가치와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유일한 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생태관광자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현재 생태관광객이 널리 이용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국토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생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태관광지에 대한 환경의식도 제고를 가져왔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학문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는 연구방법론을 통한 소비자입장에서의 연구가 미

후 태도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태관광지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산림생태관광객의 환경의식 요인들과 관광지 매력성 요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연보호의식은 관광지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오염의식은 관광지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지 매력성 요인들과 관광만족 및 관광 후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관광지 매력성이 모두 관광만족과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림생태관광객의 관광만족 요인과 관광 후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관광만족이 관광 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산림생태관광객의 환경의식이 관광지 매력성, 관광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관광에 있어서 대중관광객을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관광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더욱 큰 소비자 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학습, 체험 등과 같은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 체계를 통하여 산림생태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의 형성요인과 결과요인을 체계화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측정항목, 측정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산림생태관광객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생태관광지를 즐기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자연휴양림·산림욕장과 같은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인터넷 혹은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산림생태관광객의 의사결정의 흐름을 모델로써 제시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식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는데 있어서의 결정적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생태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생태관광지를 분산적으로 개발하는데 염두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관광지가 지역별 분산적인 확산이 어려워질 때 많은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환경 훼손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 있어서 생태관광의 마케팅전략 수립 시에 산림생태관광객들이 관광도중에 간단하면서도 아늑한 환경 속에서 관광소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식물 현장사진촬영 공모전’, ‘어린이 및 학생 생태학습’, ‘걷기대회’, ‘가족생태 체험’, ‘생태마을 관광’ 등과 같은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산림생태관광을 하나의 특정 관광 상품으로 제안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사 지역이 단일하지 않으면 일정한 지역성을 띠었으므로 그 특성이 상이한 연구결과가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전국 주요지역을 여섯 등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므로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일반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과 운영, 관리에 있어 정부와 관광기업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객뿐만 아니라 잠재생태관광객의 특성 또한 제시되어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에 있어 관광지 특성에 맞는 이용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시장 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첫째, 설문지의 연구대상을 2010년, 1년 내에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경험이 있는 582명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그나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의 대표성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문지에 분명히 산림생태관광객에 대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산림생태관광객이 모두가 높은 환경의식을 지녔고, 전부가 산림생태관광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생태관광객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실증조사

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횡단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1년 내에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경험이 있는 관광객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단 한곳의 관광경험을 기준으로 했기에 형성된 관점이 과연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점이 아닌 일시적인 관점에 의한 평가일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하여 향후 연구에서 관광객의 환경의식을 파악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종합적인 모형적합성과 영향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측정항목을 잘 선정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세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ceived: November 13, 2011.

Revised: January 13, 2012.

Accepted: January 13, 2012.

References

- 강미희(2006). *생태관광의 여행 동기 및 태도: 척도구축과 관광객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학술정보주.
- 강인원(2001). “생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6(2), 207-230.
- 구동모(2010). *마케팅연구방법론*, 학현사.
- 구영덕(2005). “대형할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각이 고객만족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통과학연구*, 3(2), 29-55.
- 김계섭, 안윤지(2004). “문화관광자원의 매력속성, 자원해설, 관광만족간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19(1), 247-272.
- 김도희(1997).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9, 35-36.
- 김성진(2002).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2002년 12월,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영국(1987). “관광자원의 매력성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 15개 사적지구 문화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동국대 학교 경주캠퍼스 논문집*, 6, 213-230.
- 김재호, 박석희(2010). “관광의례화가 방문 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유산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2), 33-51.
- 김정준(2009). “관광지 유형에 따른 관광동기, 관여도와 관광매력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수(2009). “테마파크 환경 지각이 방문객 감정반응 및 사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13(3), 43-65.
- 노용호(2004). “생태관광자 만족의 영향요인과 행동반응”,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용호, 임채관(2006). “생태관광자 만족과 행동의도-광릉수목원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21(4), 175-201.
- 노정철, 김진훈(200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모형 개발”, *건설환경논문*, 7, 39-54.
- 문창현(2008). “문화관광해설이 관광객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주한옥마을 해설투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2), 47-66.
- 박경호(2009). “IPA기법을 이용한 생태관광 매력성 평가에 관한 연

- 구”, *관광연구*, 24(2), 1-20.
- 박석희(2000). “생태관광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관광산업학회지*, 14, 67-89.
- 박혜윤, 양현주(2006). “생태관광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강화 갯벌 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10(1), 137-159.
- 배병렬(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실제*, 청람도서 출판.
- 양종희(1992).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사회적 기반”, *한국사회학*, 26(2), 2089-2120.
- 오민재, 이소연(2008). “여행 목적과 관광객 만족에 의한 생태관광객 동기 세분화”, *관광연구저널*, 22(1), 277-290.
- 우형택, 엄봉훈, 문연화(1999). “환경의식의 측정을 위한 설문지 개발과 검증”, *한국환경과학회지*, 8(5), 559-568.
- 유영심(2008). “관광가이드의 역할에 대한 만족과 관광지 매력 지각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설민(2007). “축제개최 관광지의 매력 평가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축제와 관광 진흥법상 관광지의 사호 비교를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현(2007). “일본의 관광 매력성, 관광태도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17, 222-234.
- 윤화영(2008). “산촌지역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주민의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지역과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3), 280-288.
- 이귀옥(2000). “생태관광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관광 활동참여와 만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원(2002). “지역민속축제 상품개발과 활성화 방안: 2002년 선정 지역민속축제를 중심으로”, *컨벤션연구*, 1, 87-124.
- 이재만, 지진호(2008). “지역축제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424-432.
- 이학식(2008). *마케팅조사*, 법문사.
- 이혁진, 류재숙(2007). “테마파크의 서비스스케이프가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1(2), 5-18.
- 정승훈(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의 서비스스케이프, 만족, 방문 후 태도의 영향 관계”, *관광학연구*, 34(8), 143-166.
- 정하윤(2002). “관광이벤트의 매력속성이 관광객만족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애(2005). “환경의식 척도와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 *환경정책*, 13(1), 39-69.
- 조진희, 김수봉(2007). “관광태도로 분류한 생태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관광레저연구*, 19(1), 27-43.
- 조진희, 김수봉, 김용범(2004). “관광객의 환경의식이 생태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과학회지*, 13(1), 1-9.
- 조진희(2006).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관광태도, 관광동기 및 환경의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1998). “생태관광지 개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품질시스템연구*, 4(7), 279-295.
- 한상진(2001).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의 사회적 기반”, 2001년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발표논문, 141-158.
- 홍수희(2003). “문화관광지 서비스품질, 관광객 만족 및 반응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cken, S.(2005). "The Role of Tourist for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1(1), 21-30.
- Dunlap, R. E. and Jones. R.(2002),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 in Dunlap, R. E. and Michelson, W.(ed),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Santa Barbara: Greenwood Press, 482-524.
- Dunlap, Riley E. and Beus, Curtis(1992). "Understanding Public Concerns About Pesticides: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2), 418-38.
- Fisher, R. J. & Price, L. L.(1991). "International Pleasure Travel Motivations and Post Vacation Culture Attitude Chan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3), 193-208.
- Font, X.(2002). "Environmental certification in tourism and hospitality: progress, process and prospects", *Tourism Management*, 23, 197-205.
- Font, X. & Harris, C.(2004). "Rethinking standards from green to sustainab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986-1007.
- Gearingm, C. E., Swart, W. W. & Var, T.(1974). "Establishing a Measure of Tourist Attractivenes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8.
- Huppess, G. & Ishikawa, M.(2009). "eco-efficiency guiding micro-level actions towards substantiality: ten basic steps for analysis", *Ecological Economic*, doi: 10. 1016/j. ecoecon. 2009. 01. 007.
- Richie, j. R. B. & Zins, M.(1978). "Culture as determinant of attractiveness of a reg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5: 252-268.
- Wearing, Stephen and Neil, John (2001), 이후석 역. *생태관광*, 백산출판사.
- Stronza, A. & Gordillo, J.(2008). "Community views of eco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2), 448-468.
- Tognacci, L. N.(1972). "Environmental quality: how universalisa public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4, 73-86.
- Weigel, R., Vernon, D. and Tognacci, L. N.(1974). "Specificity of attitude asadeterminant of attitude-behavior congr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6), 724-728.
- Weigel, R. and Weigel, J.(1978). "Environmental concern: the development of a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10(1), 3-15.
- West, P. & Carrier, J.(2004). "Ecotourism and authenticity: getting away from it all?", *Current Anthropology*, 45, 483-491.
- Yoon, Y. and Uysal, M.(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Tourism Management*, 26(1), 45-56.